

햅쿠타 나오키(百田尙樹)의 『영원한 제로(永遠の0)』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 고찰*

노 윤 신**

(e-mail : ysroh1008@naver.com)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햅쿠타 나오키의 우경화 및 민족주의 현상 고찰	2.3.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 속 일본인의 서사시와 왜곡된 민족주의
2.2. 『영원한 제로』 속 애국정신과 전쟁가해 희생	2.3.1. 일본인의 서사시
2.2.1. 애국정신	2.3.2.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의 주인공과 『영원한 제로』 주인공의 만남
2.2.2. 전쟁가해희석	2.3.3. 왜곡된 민족주의
	3. 결론

키워드 : 百田尙樹(Naoki Hyakuta), 『永遠の0』 (“The Eternal Zero”), 『海賊とよばれた男』 (“A Man Called Pirate”), アジア-太平洋戦争(The Asia-Pacific War), 日本右傾文学作品(Japanese Right-wing Literature Works), 民族主義(Nationalism)

1. 서론

우경화의 한 부분인 민족주의가 일본 정치 분야에서 1990년대부터 이어져왔다. 이를 반영하듯, 2000년대 이후 문학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장르에서도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 분야에서의 움직임 중에서 우경화 및 민

* 이 연구 성과는 2018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2030년 글로벌 동아시아학을 선도하는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연구보조원, 일본 근현대문학·문학

족주의 성향의 문학작품으로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작품의 왜곡된 민족주의적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하쿠타의 작품 중 『영원한 제로(永遠の0)』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海賊とよばれた男)』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만화책으로까지 제작되었다. 두 작품 모두 영화는 야마자키 타카시(山崎貴) 감독이, 만화책은 스모토 소이치(須元壯一) 작가가 제작 및 발간하였다. 두 작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3년 12월 31일에 영화 <영원한 제로>를, 2017년 1월 1일에 영화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를 감상하면서 더욱 흥행을 하였다.¹⁾ 작품 『영원한 제로』는 550만부 이상,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는 400만부 이상의 판매 및 발행부수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들이다. 또한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에서는 주인공과 『영원한 제로』의 주인공이 직접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작품을 연장선상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작품을 이 연구의 고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두 개의 문학작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미우라 고타로(三浦小太郎)는 작품 『영원한 제로』에 대해 ‘대동아전쟁’을 일본 현대인에게 친근하게 체험시키고 문학으로 재현한 것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대히트를 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상승효과를 받아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도 히트를 친 것이며, 두 작품이 히트를 친 이유는 제1차 아베정권 탄생부터 현재까지 일본이 다양한 위기를 국내외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국가의식과 정치의식에 각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³⁾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는 『영원한 제로』를 통해 그 동안 역사를 몰랐던 일본인들은 반성해야 하며, 패전사관(敗戦史観)을 뛰어 넘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또한 미국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교육으로 인해 ‘일본인만 나쁘다’는 세뇌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언론과 학계도 비겁해지고 ‘패전이득자’가 생겨나 그 후손들이 언론 통제를 이어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⁴⁾ 니시무라 고유(西村幸祐)는

1) 아베 총리가 아시아-태평양전쟁 영화인 『영원한 제로』를 보고 매우 감동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의 국영중앙TV는 “아베가 일본을 영원한 제로로 만들려고 한다”, “진정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지극히 공포주의의 선전이다”라는 등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취하였다.(『朝日新聞』(2014.1.3) 「『永遠の0』を見て、とても感動したと何度も繰り返しした」中国の国営中央テレビ、安倍首相を批判」.)

2) 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만나는 장면에 대해 언급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작가가 작품에 설치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시사 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두 작품의 영화감독인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 또한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는) 『영원한 제로』와 종전(태평양전쟁)을 공통소재로 하여 연결되어 지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産経ニュース』(2016.12.9) 「映画「海賊とよばれた男」山崎貴監督「永遠の0」と対になる物語」.)

3) 三浦小太郎(2014) 「『永遠の0』と第二次安倍政権」 『伝統と革新』15巻, たちばな出版, pp.110-119

4) 渡部昇一・百田尚樹(2014) 「『永遠の0(ゼロ)』で敗戦史観を超えよ: GHQの洗脳と思想弾圧を破り日本人の勇気を取り戻す」 『Voice』433巻, PHP研究所, pp.86-98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이 ‘잃어버린 20년’을 돌파하기 위한 비전으로 두 작품의 시대배경 속 인물인 ‘다이쇼세대(大正世代)’에서 찾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⁵⁾ 반면 하타 시게오(秦重雄)는 2006년 7월에 간행된 아베 총리의 『아름다운 나라(美しい国)』와 2006년 8월에 간행된 작품 『영원한 제로』의 발행 시기를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전쟁부정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전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독자를 이끌 위험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판정하였다.⁶⁾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일본 내에서는 하쿠타의 두 작품에 대해서 비평보다는 찬사의 글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 전쟁책임을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왜곡된 민족주의적인 내용들이 다수의 잡지기사로 실려 있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쿠타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일 양국 관계를 짚어보는데 있어 정치에서 나타난 우경화 및 민족주의가 문학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하쿠타의 작품 『영원한 제로』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과거 전쟁책임을 기억을 소거하거나 미화시키고, 특정 인물들에 대해 전설화하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자긍심과 투지를 고취시키고자하는 내용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 나아가 두 개의 문학작품에 내재된 왜곡된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파악하여 2000년대의 우경문학작품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하쿠타 나오키의 우경화 및 민족주의 현상 고찰

하쿠타는 “남경대학살과 위안부는 없었다”, “동경재판은 동경대공습이나 원폭투하를 눈속임하기 위한 재판이었다”라는 등의 지론을 전개한 작가이다. 하쿠타는 아베 총리와 대담한 것을 책으로 간행하였는데, 그 책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⁸⁾ 그는 강연회에서도 “침략과

5) ‘다이쇼세대’는 전쟁을 겪고 패전 후 일본을 일으켜 세운 세대를 말한다. 그 세대가 사회에서 은퇴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이며, 그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百田尚樹·西村幸祐(2013) 「大特集 靖国神社へ行こう! : [特別対談] 完成した『永遠の0』を試写室で見たら、どんだん涙が流れて止まらなかった。」 『ジャパニズム』 14卷, 青林堂, pp.5-14)

6) 秦重雄(2015) 「永遠のゼロ: 小説を検証する」 『部落問題研究』 213卷, 京都: 部落問題研究所, pp.197-210

7) 小浜逸郎(2014) 「『永遠の0(ゼロ)』が教えるもの」 『Voice』 435卷, PHP研究所, pp.15-17; 瀬戸川宗太(2017) 「政治に歪められた映画たち: 『海賊とよばれた男』から『スノーデン』まで作品の出来よ!」 「右翼」 「左翼」のレッテルが優先する奇妙奇天烈」 『Voice』 473卷, PHP研究所, p.206

과오의 역사를 중·고등학교 역사수업에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 인물이다. 이러한 현상이나 언설을 ‘우경화(右傾化)⁹⁾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 TV방송작가 일을 해온 하쿠타의 발언이나 작품을 보면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구어의 인상적인 사용과 감정을 증폭시키는 방법에 있어 능란한 측면이 있다. 아베 총리와 대담 속에서도 “더욱 강하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요! 그것도 반복 또 반복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몇 번이고 계속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⁰⁾라며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 히틀러의 대중계몽 선전장관의 자리에 앉아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인 오제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가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하지만 두 번 말하면 의심하게 되고 세 번 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말을 했었다. 괴벨스는 TV와 라디오를 정치선전에 활용한 선구자이며, 정치 쇼의 원조이자 공약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 전략의 선구자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선동에 불과하며, 본인도 억제불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하쿠타는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이 “아이들에게 ‘일본을 싫어하게 하는’ 교육으로 행해져왔다. 그것이 ‘자학사상’에 의한 교육인 것이다.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프라이드’와 ‘자신감’이다.”¹¹⁾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교육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전의 일본을 부정하기 위한 역사’와 ‘일본을 명예롭게 생각하기 위한 역사’는 동전의 앞뒷면에 불과하며, 둘 다 역사의 사실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무언가 기준을 세운 뒤에 역사를 논하는 것은 산더미 같은 사료들 속에서 자기 논지를 보강하기 위한 것만 골라서 나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 정치에서의 우경화 및 민족주의적인 흐름¹²⁾으로 인하여 우경문학작품이 인기몰

8) 安倍晋三·百田尚樹(2013)『日本よ、世界の真ん中で咲き誇れ』ワック.

9) 일본의 우익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우익의 일반적인 요소라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우익은 천황제를 국가의 절대적인 요소로 생각한다. 또한 일본문화에서 전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예로부터의 풍습과 도덕을 일본 현실정치에서 실현시켜야 할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일본우익사상은 일본의 국체와 풍습, 도덕을 보호·유지하고 선양하는 이념에 입각한 사상이며, 우익세력이라 이러한 사상을 일본현실정치에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이라 말할 수 있다.(김호섭 외(2000)『일본우익연구』 도서출판 중심, p.21)

10) 위의 책, 安倍晋三·百田尚樹(2013)

11) 「子供たちに「日本を嫌いにさせる」教育が行われてきた。それが「自虐思想による教育」である。」 「子供に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誇り」と「自信」である」(위의 책, 安倍晋三·百田尚樹(2013) pp.151-153)

12) 일본 정치의 보수 우경화와 이를 지지하는 일본국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①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정체, ②보수주의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일본 내 혁신세력의 쇠퇴, ③일본정부의 ‘사죄외교’에 대한 반발, ④청년층의 우경 신봉, ⑤보편적인 가치관보다 국가주의

이를 하고 있다. 우경문학작품들 중에는 전범 미화나 역사수정주의 등의 내용이 있으며, 아무런 제한 없이 일본 문화계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일본의 우경화 및 왜곡된 민족주의 문제를 우경문학작품 중 하쿠타의 『영원한 제로』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를 통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영원한 제로』 속 애국정신과 전쟁가해회석

2.2.1. 애국정신

역사소설과 전쟁소설 장르로 분류되는 작품 『영원한 제로』는 하쿠타의 데뷔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아버지와 친척의 영향을 받아 집필한 것이다.¹³⁾ 처음에는 원고를 제출한 여러 출판사에게 거절당하였으나 2006년 하위문화계열 출판사인 오타출판(太田出版)을 통하여 발표되었다.¹⁴⁾ 2009년 고단샤(講談社)를 통해 문고본으로 발매되었으며, 그 후 화제를 일으키며 2014년에는 아마존 ‘all-time 베스트 소설 100’에 선정되어 판매부수 550만부(2015년 1월 기준)를 돌파하였고, 현재 50만까지 나온 상태이다. 만화책은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간행되었다. 영화는 2013년 12월에 문학작품과 같은 제목으로 개봉되었는데, 문부과학성이 ‘소년용’, ‘청년용’, ‘성인용’, ‘가정용’이라 추천하여 관객 동원수가 700만 명¹⁵⁾을 돌파하였다. 이것은 과거 10년 동안 일본영화부문에서 최고의 대히트기록을 한 것이다. 2014년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2015년에는 TV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제로센 조종사로서 수많은 전장에서 싸우고, 최후에는 특공대원으로서 사라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후60년 여름에 전후세대인 남매¹⁶⁾가 당시 조종사들을 찾아다니는 형태로 진행된다. 젊은이 2명이 당시 특공대원을 찾아다니면서 특공이나 전쟁, 군대에 관한 사실에 대해 경청하는 심플한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마치 실존인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작품의 주인공인 미야베 규조(宮部久蔵)는 실존인물이 아니다. 하쿠타가 특공대에 관한 기록들을 읽고 종합하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 것이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인물인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실제 전쟁에 참가하는 설정으로 되어있어, 여러 각도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한 작품이기도 하다.¹⁸⁾

가 우선할 수 있는 일본적 특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김태기(2006)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p.306-307)

13) 梶林秀 外(2013) 『零戦の軌跡: 『永遠の0』に描かれた激闘の記録』, 双葉社, p.115

14) 『日本経済新聞』(2013.12.20) 「『隠る零戦探偵士』に込めた思い、百田尚樹さんに聞く: 映画『永遠の0』原作者」.

15) 2014년 4월 4일 기준

16) 저널리스트 지망인 여성(30세)과 남동생(26세)

17) 위의 책, 梶林秀 外(2013) p.116

내용을 살펴보면, 전투기 조종사답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는 동료에게 주인공인 미야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는 건 언제나 가능한 일이야. 살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¹⁹⁾

“넌 가족도 없어? 네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없느냐 말이야!”²⁰⁾

“아무리 괴로 워도 살아남도록 노력해.”²¹⁾

“(지금 나의 제1의 꿈은) 살아서 가족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²²⁾

이 내용을 통해 독자는 전투기를 타고 죽을 각오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생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가족을 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한다는 슬로건은 시대를 넘어서 사람들이 용이하게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 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되는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오로지 미야베 씨 덕분입니다.”

“미야베는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니, 미야베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죽은 분들은 모두 우리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²³⁾

“미야베씨는 목숨을 살려준 분입니다.”

“아니 미야베씨는 진정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²⁴⁾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죽는다 하더라도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다.”²⁵⁾

18) 실제로 하쿠타 나오키는 본인의 트위터에 “『영원한 제로』는 불쌍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부터는 라이트노벨이라며 바보취급을 받고, 군사 오타쿠로부터는 표절이라 불리고, 우익에서는 군의 상층부 비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좌익에서는 전쟁찬미라 비난받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조작이라 나무라며, 자학적인 사람들은 작가가 넷우익이라 판단한다. 사방에서 집중포화”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19) 「死ぬのはいつでもできる。生きるために努力すべきだ」(百田尚樹(2009)『永遠の0』, 講談社, p.237)

20) 「貴様には家族はいないのか。貴様が死ぬことで悲しむ人間はいないのか」(위의 책, 百田尚樹(2009) p.238)

21) 「どんなに苦しくても生き延びる努力をしろ」(위의 책, 百田尚樹(2009) p.239)

22) 「(今の私の一番の夢は)生きて家族の元に帰ることです」(위의 책, 百田尚樹(2009) p.286)

23) 「今、私かこえて生きてられるのは、宮部さんのお陰なのです」「宮部さんのおかげで死ななくていい。宮部さんだけではなく、あの戦争で亡くなった方たちはみんな、私たちのために死んだのでしょ」(위의 책, 百田尚樹(2009) p.551)

24) 「宮部さんは命を助けて貰ったのです」「いえ、宮部さんは、本当は命を懸けて私を守ってくれたのです」(위의 책, 百田尚樹(2009) p.557)

25) 「この美しい国を守るためなら、死んでも惜しくないと思った。」(위의 책, 百田尚樹(2009) p.541)

나라를 위해 싸우고 젊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남은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존경받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무의식중으로 독자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작품 속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공대가 ‘애국정신’²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전쟁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한 뒤, 적군이 항복할 때까지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며, 살고 싶다는 본능에 집중하게 되는 처절한 현상이 전장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 속 전장에서의 ‘애국정신’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하다. 또한 나라를 위해 애국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싸운 할아버지 세대를 ‘위대한 세대’²⁷⁾라고 칭하면서 그들이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의 일본을 다시 일으킨 것을 강조한다. 작품의 성격상 다이쇼세대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는 내용을 주인공들의 말로 반복하는 것만으로 독자들에게는 은연중에 각인될 것이며, 이것은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글로 쓰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하쿠타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모두가 칭찬해주는 삶의 방식이 있으며, 삶의 목적을 잃은 젊은이들은 잉여인간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는 자랑스러운 삶이 있음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일본이 있는 것이니 이 사실을 감사해 하고, 현재 일본의 풍요로움은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해서 일궈놓은 것이므로, 불평하기 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본을 위해 열심히 일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품 속에서 국가와 기업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애국이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겁쟁이이고 비겁자라는 걸 주인공들의 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시키고 있다.

2.2.2. 전쟁가해회석

일본의 2012년 전후 출생자가 1억 명을 넘었다. 2005년에 성인이 된 사람이 전체인구의 2.3%, 전쟁경험이 있는 사람이 1%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듯 전쟁 경험이 없는 젊은 독자들에게 하쿠타의 작품은 위화감 없이 특공대를 받아들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특공대원의 비극과 고뇌, 인간성의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것은 ‘특공은 결코 헛된 작전이 아니었으며,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가해를 회석시키는 것’과 연결되어진다. 왜냐하면 작품

26) 「国のために命を捨てるのは、日本人だけではありません。我々は天皇陛下のためという大義名分がありました。しかしアメリカ人は大統領のために命は捨てられないでしょう。では彼らは何のために戦ったのか—それは真に国のためだ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して実は我々日本人もまた、天皇陛下のために命を懸けて戦った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やはり愛国の精神なのです。」(앞의 책, 百田尚樹(2009) p.115)

27) 「祖父たちは何と偉大な世代だったことか。あの戦争を勇敢に戦い、戦後は灰燼に帰した祖国を一から立て直したのだ。」(앞의 책, 百田尚樹(2009) p.300)

속에서는 세계대전 당시 일본병사들의 비참한 체험이 대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이 다른 이웃국가들을 침략하고 식민하고 가해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임에도 역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진주만기습’, ‘미드웨이해전’, ‘솔로몬해전’, ‘과달카날’ 등의 고유 명사 정도가 언급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후배경 설명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한국’ 등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와 싸웠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일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전한 세계대전에 대해 일본인의 비극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감정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역사를 왜곡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더구나 특공기의 교체나 상관에 반항한 자가 특공훈련 교관을 계속하는 등 역사적으로 리얼리티가 결여된 내용들이 작품 속을 채우고 있다.

우경엔터테인먼트(右傾エンタメ)로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은 결국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감동했다,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더라는 언급이 많았다. 작품의 시대배경이 세계대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해자의 측면으로서는 전혀 읽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역사적인 혹은 군사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없으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곳곳에 채워져 있다.

“거듭 말하지만, 제로센은 정말로 무적의 전투기였어요. 연합군에게는 제로센과 겨룰 만한 전투기가 없었어요.”²⁸⁾

“반년에 걸친 과달카날의 전투야말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진정한 분수령이었어요.”²⁹⁾

“……미국 항공 관계자는……정말 무서운 전투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현 시점에서 제로센과 대등하게 싸울 전투기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합니다.”³⁰⁾

과달카날의 전투가 아닌 미드웨이해전에서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28) 「何度も繰り返しますが、零戦は本当に無敵の戦闘機でした。連合軍には零戦と互角に戦える戦闘機がなかったのです」(앞의 책, 百田尚樹(2009) p.152)

29) 「半年にわたったガダルカナルの戦いこそが、太平洋戦争の本当の分水嶺となった戦いだったのです」(앞의 책, 百田尚樹(2009) pp.197-198)

30) 「……美軍の航空関係者は……真に恐るべき戦闘機を作らせたことを知り、驚愕です。そして度々、現時点において零戦と互角に戦える戦闘機は我が国には存在しないということを認識したといいます」(앞의 책, 百田尚樹(2009) pp.197-198)

인 시각이다. 또한 제로센은 동시대에 활약한 영국의 ‘스피트파이어’나 독일의 ‘메서슈미트 bf109’ 기체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거기다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 미국의 군사력은 강하지 않았다. 특히 전투기 분야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뒤쳐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로센은 비교적 최신의 기체였고, 조종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기체 기동력과 항속거리를 늘렸다. 이는 양성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조종사들을 많이 희생하게 되었으며, 세계대전말기의 일본은 베테랑 조종사의 극심한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체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20년 동안 양성해야 하는 조종사의 중요성을 다른 나라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모한 제로센 제작방식을 다른 나라들이 못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제로센이 마치 무적의 전투기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독자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2.3.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 속 일본인의 서사시와 왜곡된 민족주의

2.3.1. 일본인의 서사시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는 2012년 7월에 발행되어 2013년에 ‘제10회 일본서점대상’ 1위를 차지한 화제작이었으며, 아베 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한 책으로 유명세를 날려 누계 발행부수 400만부(2016년 11월 기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이다. 오디오드라마는 2014년에 제작되었으며,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도 『영원한 제로』와 동일하게 스모토 소이치 작가가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쳐 만화책으로 간행하였고, 2016년 말에 다시 영화로 『영원한 제로』와 동일하게 야마자키 다카시 감독이 제작하여 개봉되었다.

내용은 주인공인 구니오카 테츠조(国岡鉄造)의 자전이다. 일본 4대 정유회사로 꼽히는 이데미쓰고산(出光興産)의 창업자인 이데미쓰 사조(出光佐三)를 모델로 하였다. 작품 속 구니오카상회(国岡商会)의 모델도 이데미쓰고산인 것이다. 작품의 다른 남자등장인물도 실제 모델이 존재하며, 각각의 일화들도 실화에 의거하고 있다. 구니오카상점(国岡商店)은 큰 회사가 되어서도 출근부와 정년과 해고가 없었으며, 현대의 월급쟁이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사원을 신용한 인간존중의 개인상점이다. 또한 윤활유, 연료유(경유, 등유)로 불리는 석유제품의 취급을 생업으로 하면서, 전전과 전후에 석유가 전략물자로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류를 타고 사업을 확대한다. 그러나 사업 확장은 신규참가자에게 있어, 기득권 영역과의 싸움이자 부도 위기의 연속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때마다 점주 구니오카와 사원들의 인간적인 매력과 경이적인 노력으로 난국을 극복해 나간다. 기득권 영역의 독점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지의 해외(만주,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한다.

상권에서는 해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화는 한정되어 있으며, 초창기의 시모노세키(下関) 앞바다 해상에서 어선의 연료유판매, 상해에서 석유수입기지건설, 초대 닛쇼마루(日章丸)의 건조(建造)가 나온다. 하권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일화의 분량이 늘어나며, 주요 일화로는 ‘닛쇼마루 사건’과 ‘도쿠야마제유소(徳山製油所) 건설’이 등장한다. 닛쇼마루 사건은 1953년 서방 석유 메이저의 봉쇄를 뚫고 이란과 석유 직거래에 나선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석유의 자유무역이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³¹⁾고 한다. 또한 도쿠야마제유소 건설(쇼와33년 1월)은 당시 2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0개월에 걸쳐 제유소 건설을 마쳤다고 한다. 이러한 공사기간의 단축은 기술개혁으로 인한 것이 아닌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뜨거운 인간 드라마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기업인들이 국가재건을 위해 어떻게 분투했는지를 그리고 있으며, 현대일본인들이 잃어버린 긍지와 투지, 의리 등의 덕목을 일깨우는 내용들로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독자에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혹은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구니오카와 같이 한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영웅적인 존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건국, 전쟁, 혁명, 천재지변 등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서술하는 시를 서사시라 한다.³²⁾

작품 속 주인공은 세계대전 직후 패전에 의해 국내외에 쌓아놓은 자산을 모두 잃고, 석유제품을 전혀 취급할 수 없어 장사를 할 수 없을 때에도 인간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사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기득권 영역과 싸우면서 회사의 부활을 이행해나간다.

“점원은 가족과 다름없다.……너희들은 가족이 어려워지면 어린 가족을 버리는가.”³³⁾

“……천명에 달하는 점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구니오카 상점의 최고 자재이며 재산이다.……”³⁴⁾

“나는 인간을 신뢰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을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일본인의 세계적인 사명입니다.”³⁵⁾

31) 岡崎優子(2016) 「山崎貴[監督]インタビュー: 立派な人を描く伝記映画にはしない」 『キネマ旬報』, キネマ旬報社, p.20; 百田尚樹(2012) 『海賊とよばれた男 下』, 講談社, p.222

32)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서사시에서 시적인 요소가 약해지고 이야기적인 요소가 강화되면서 서사시라는 개념으로 작품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33) 「店員は家族と同然である。…君たちは家族が苦しくなったら、幼い家族を切り捨てるのか」(百田尚樹(2012) 『海賊とよばれた男 上』, 講談社, p.22)

34) 「……一千名にもよぼる店員たちだ。彼らこそ、国岡商店の最高の資材であり財産である。……」(위의 책, 百田尚樹(2012)上 p.21)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³⁶⁾

위와 같이 인간존중을 실천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의 영웅화는 현재 일본이 처한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부터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왔으며, 2008년에는 100년 중 한 번의 불황이라고도 일컫는 글로벌 금융인 리먼 사태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2011년 3월에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다. 일본은 큰 타격을 받았고, 세간에는 일종의 체념 분위기가 번지고 있었다. 이에 작가 하쿠타는 자신감을 잃은 경영자, 노동자, 일본인들에게 작품의 실존 인물인 이데미쓰와 이데미쓰를 지지한 남성들의 삶을 알리기 위해 작품을 집필한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쟁에 진 일본이 불과 몇 년 만에 그런 큰 배를 만들고, 샌프란시스코에 나타났으니 대단한 것이라 생각했다.”³⁷⁾

“일본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래 일본인은 ‘와(和)’를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민족입니다.”³⁸⁾

일본은 전전에 갖고 있던 세계최고 수준의 조선기술을 다시 회복했다. 테즈조는 재건한 일본 기술력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³⁹⁾

일본은 전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최고 수준의 조선기술을 다시 되찾고 있었다.⁴⁰⁾

테즈조는 올림픽 개최 중계방송을 보면서 마침내 일본이 여기까지 재건했는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⁴¹⁾

“일본인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멋진 나라가 되어 있다고.”⁴²⁾

“일본인이 본래 일본인의 미덕을 되찾는다면, 구니오카상점의 손익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⁴³⁾

35) 「私は、人間を信頼するという考え方を広めていくことこそ、日本人の世界的使命と言っています」(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354)

36) 「正義は必ず勝つ」(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202)

37) 「戦争に負けた日本が、わずか数年であんな大きな船を作って、サンフランシスコにあらわれたのだから、たいしたものだと心から思った」(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240)

38) 「日本は平和な国になりました。本来、日本人は『和』を何よりも尊ぶ民族です」(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244)

39) 日本は戦前に持っていた世界最高レベルの造船技術を再び取り戻していた。鉄造は、復興となった日本の技術力のすごさを世界に示したいと考えたのだ。(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290)

40) 日本は戦前に持っていた世界最高レベルの造船技術を再び取り戻していた。(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290)

41) 鉄造はオリンピックの開会式のテレビ中継を見ながら、ついに日本はここまで復興したのかと思うと、胸が熱くなった。(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324)

42) 「日本人が誇りと自信を持っているかぎり、今以上に素晴らしい国になっておる」(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336)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긍지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⁴⁴⁾

“여러분만큼 훌륭한 사람들은 없습니다.……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한 재해가 미치는 것을 두려워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숭고한 행동을 하였다.”⁴⁵⁾

하쿠타는 일본의 조선기술과 태평양전쟁 이후 재건에 성공한 정신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작품에서 ‘일본인의 미덕’ 혹은 ‘일본인의 긍지와 자신감’을 현대일본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닛쇼마루 사건에 대해 일본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친 최대 사건이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완전하게 역사 속에 묻혔다고 말한다.⁴⁶⁾ 즉 그는 현대일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본인의 서사시’이자 ‘민족의 서사시’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대전 이전의 것들이 전후 일본의 재흥을 위해 도움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⁴⁷⁾

만약 나중에 일본에 다시 국난이 닥친다고 해도, 일본 민족이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⁴⁸⁾

이렇듯 ‘강한 일본’을 그리워하는 역사물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일본 출판·미디어 전문 주간지인 『분카쓰신(文化通信)』의 호시노 와타루(星野涉) 편집장은 “과거에는 ‘서구를 배우자’는 계통의 책이 잘 팔렸는데 최근에는 ‘서구도 일본을 훌륭한 나라로 본다’는 종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면서, “자신감이 있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을 텐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은 까닭”이라고 현재 일본출판시장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43) 「日本人が本来の日本人の美德を取り戻せたら、国岡商店の損益ごときはものかずではない」(앞의 책, 百田尙樹(2012)下 p.348)

44) 「……いちばん大事なことは日本人の誇りと自信を失わないこと。それさえ失くさなければ、何も怖れることはない」(앞의 책, 百田尙樹(2012)下 p.348)

45) 「皆さんほど立派な人たちはいません。……他人の生命を重んじ、他に災害が及ぶことを恐れ、誰にも真似のできない崇高な行動を取った」(앞의 책, 百田尙樹(2012)下 p.309)

46) (百田尙樹(2013) 「[Books&Trends] 『海賊とよばれた男 上·下』を書いた作家百田樹氏に聞く」 『週刊東洋経済』 6459巻, 東洋経済新報社, pp.100-101) 작품 속에서도 “日章丸、万歳!…日本、万歳!”라며 ‘닛쇼마루’배에 탄 탑승전원이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新聞の一面に大きく写真入りで報道された。今やイラン国民にとって、「日章丸」は最大のニュースだった。”, “…「日章丸事件」は大きな国際事件に発展していた。”라고 직접 언급되어 있다.(앞의 책, 百田尙樹(2012)下 p.174, p.186, p.200)

47) 앞의 책, 百田尙樹·西村幸祐(2013) p.8

48) たとえいつの日か、日本に再び国難が襲ったとしても、日本民族なら必ず立ち直ることができる。(앞의 책, 百田尙樹(2012)下 p.359)

2.3.2.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의 주인공과 『영원한 제로』 주인공의 만남

앞서 언급했다시피,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의 주인공인 구니오카와 『영원한 제로』의 주인공인 미야베가 직접 만나는 장면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만나는 장면에 대해 언급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으나, 작가가 작품에 설치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것은 두 개의 작품을 연장선상에서 연구해야할 필요성에 당위성을 부과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츠죠는 에토 대령의 차를 타고, 상하이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 갔다. 광대한 비행장에 수십 대나 되는 비행기가 줄 지어 있었다. 지금까지 뉴스영화에서는 몇 번 봤지만, 폭격기나 전투기를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테츠죠는 이들 비행기가 넓은 중국대륙에서 폭주하고 있는 사실에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잠시 후, 서쪽 하늘에서 폭음이 들리고 편대가 내려왔다.

“공습에서 돌아온 것 같네요.”

질은 녹색의 쌍발 대형 폭격기 뒤로 회색의 스마트한 비행기가 착륙했다. 뉴스영화에서도 본격이 없는 기체였다.

“저것은 무슨 전투기입니까?”라고 테츠죠는 에토에게 물었다.

“신형전투기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세계최강의 전투기입니다.”

“대단하네요.”

테츠죠는 다시 한 번 그 전투기를 봤다. 기체에서는 ‘최강’이라는 단어의 인상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우아하면서 가냘프게 보였다. 동시에 일종의 덧없음 같은 것을 느꼈다. 일본적인 강함과 약함을 가진 비행기처럼 보였지만, 그 인상을 물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다.⁴⁹⁾

49) 鐵造は江藤大佐の車に乗って、上海の海軍航空基地に行った。

広大な飛行場に何十機という飛行機が並んでいた。これまでニュース映画では何度も見ていたものの、爆撃機や戦闘機を間近にするのははじめてだった。鐵造はこれらの飛行機が広い中国大陸で暴れまわっていることに、日本人として誇らしいものを感じた。

しばらく見ていると、西の空から爆音が聞こえてきて、編隊が降りてきた。

「空襲から戻ってきたようです」

暗緑色の双発の大きな爆撃機の後に、灰色のスマートな飛行機が着陸した。ニュース映画でも見たことのない機体だった。

「あれはなんという戦闘機ですか」と鐵造は江藤に訊ねた。

「新型戦闘機です。今年の七月から正式採用になりました。世界最強の戦闘機です」

「それはすごい」

鐵造はもう一度その戦闘機を見た。機体からは「最強」という言葉の印象は感じられず、むしろ優美で華奢に感じた。同時にある種の 儂さのようなものを感じた。日本的な強さと脆さを持った飛行機のように思えたが、その印象はもちろん口にはしなかった。(앞의 책, 百田尚樹(2012)上 p.351)

이와 같이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에서도 제로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구니오카가 제로센을 실제로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이 작품에 나와 있으나, 이것이 작품주인공의 모델이 된 실존인물이 실제로 말하거나 생각한 내용인지에 대한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실존인물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폭격기나 전투기가 중국대륙에서 폭주하고 있는 사실이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느낀 부분과 제로센을 보면서 일본적인 강함과 약함을 가진 비행기처럼 보였다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던 전쟁에 대해 전후배경에 대한 내용 언급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서술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은 있습니까?”라고 테즈죠가 물었다.

“해군의 비행기는 완성된 해의 끝자리 숫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 코우키(皇紀)2600년의 마지막 숫자를 따서, 영식 함상 전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제로 전투기입니까? 정말로 신기한 이름이네요.”

그때 영식 함상 전투기에서 한명의 젊은 항공병이 내려와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항공병은 사령부로 향하던 중, 테즈죠의 앞을 지나갔다.

“수고하십니다.”

테즈죠는 무심코 항공병에게 고개를 숙였다. 젊은 항공병은 멈춰 서서, 해군식의 경례를 했다. 테즈죠는 청년의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운 움직임에 탄복했다. 스무 살을 조금 넘긴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지만, 온몸에서 웅망스러운 분위기가 넘치고 있었다. 가슴에 있는 명찰에 ‘미야베(宮部)’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항공병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일본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 또한 일본을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⁵⁰⁾

50) 「名前はありますか」と鐵造は尋ねた。

「海軍の飛行機は完成した年の末尾の数字で呼びます。ですから今年の皇紀二六〇〇年の最後の数字を取って、零式艦上戦闘機と呼ばれています」

「ほう、ゼロ戦闘機ですか。何とも不思議な名前ですな」

そのとき、零式艦上戦闘機からひとりの若い航空兵が降りてきてこちらに向かってるのが見えた。航空兵は司令部に向かう途中、鐵造の前方を通った。

「ご苦労様です」

鐵造は思わず航空兵に頭を下げた。若い航空兵は立ち止まり、海軍式の敬礼をした。鐵造は青年の無駄のない美しい動きに感服した。二十歳をわずかに過ぎたぐらいの背の高い、痩せた男だったが、全身から精悍な空気が漲っていた。胸の名札に「宮部」と書いてあるのが見えた。

その航空兵の後ろ姿を見ながら、彼のような若者たちが日本のために戦ってくれているのだと思うと、胸が熱くなった。自分もまた日本のために頑張らねばならない、と心に誓った。(앞의 책, 百田尚樹(2012)上 p.352)

위의 장면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의 주인공인 구니오카가 해군 항공기지에서 만난 제로센 항공병인 ‘미야베’의 명찰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미야베’라는 이름을 가진 항공병은 『영원한 제로』의 주인공인 ‘미야베’의 이름과 동일하다. 하지만 『영원한 제로』의 주인공인 미야베는 작가 자신도 실존인물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작가가 특공대 관련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본인에게 형성된 이미지를 인물화한 것이라 말하였다. 그러나 독자입장에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된 픽션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작품의 판매부수와 영화의 관람객수로 이어진 것이라 보여 진다.

2.3.3 왜곡된 민족주의

테츠죠는 쇼와56년 1월 회사 내의 잡지인 『월간구니오카(月刊国岡)』에 「새해인사(年頭の辞)」의 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나는 “일본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일본인이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일본의 민족성을 잃고 있어서, 웬만한 일로서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하늘(天)에서 패전이라는 큰 절퇴를 가한 것이다. 이는 하늘이 준 고귀한 큰 시련이다. 따라서 불평이 아닌 3천년의 역사를 높이 평가하고 즉시 재건을 시작하자”라고 소리쳤다.⁵¹⁾

작가가 영웅화시킨 주인공 테츠죠의 “일본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라는 작품 속 발언은 일본의 패전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일본이 세계대전을 통해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뉘우침보다는 일본의 민족성을 재평가하고 재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독자에게 왜곡된 민족주의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일본의 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작품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례로 다음의 관동대지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다이쇼(大正)12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관동 일대를 거대한 지진이 덮쳤다. 관동대지진이다. 동경과 요코하마는 지진과 화재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17만호 이상의 집이 파괴되고, 38만호 이상의 집이 탔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수는 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많은 회사나 공

51) 私は『日本人は戦争に負けたのではない。あまり日本人が道徳的に廃頽し、日本の民族性を失なっているからなにかいこの事では目がさめないで、天が敗戦という大鉄槌を加えられたのである。これは天の尊い大試練である。だから愚痴を言わず、三千年の歴史を見直し、直ちに再建にとりかかれ』と怒鳴った。(앞의 책, 百田尚樹(2012)下 pp.359-360)

장도 큰 피해를 받아 경제적 손실은 55억 엔이라고 하였다. 그 당시 국가예산이 14억 엔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 존망의 위기였다. 동경 내에 있는 은행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고 금융업계는 대부분 기능이 정지되었다.⁵²⁾

작품 속에 언급된 관동대지진과 관련된 사건내용은 위의 내용이 전부이다. 관동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인해 6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되었는데, 이에 대한 것은 하쿠타의 작품 속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반면, 도쿠다 슈세이(徳田秋声:1872-1943)는 「소화기(ファイアガン)」(1923년 11월 「중앙공론(中央公論)」)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이 일으킨 잔학한 행동이었던 조선인 대학살이 조선인의 행동에 대한 착각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⁵³⁾ 그리고 유언비어의 원인을 수색해 보아도 “아무런 근거도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⁵⁴⁾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관동대지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본이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는지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로서 존재하는 역사에 대하여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는 것이며, 자칫 일본에게 불리한 역사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를 침략했다고 규탄하지만, 일본은 조선과 만주 그리고 대만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여 다양한 시설을 만들고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댐과 발전소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필시 조선과 만주 그리고 대만은 이 투자를 바탕으로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⁵⁵⁾

- 52) 大正十二年九月一日午前十一時五十八分、関東一円を巨大地震が襲った。関東大震災である。東京、横浜は地震と火災によって焦土と化した。十七万戸以上の家が壊滅し、三十八万戸以上の家が燃えた。死者、行方不明者の総数は万人以上に上った。多くの会社や工場も大きな被害を受け、経済的損失は五十五億円とも言われた。そのころの国家予算が十四億円であるから、まさしく国家の存亡の危機だった。東京府内にある銀行の半分以上が倒壊し、金融業界はほとんど機能停止した。(앞의 책, 百田尙樹(2012)上 p.282)
- 53) 형사들은 그때 일반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던 조선인의 행동이나 착각으로 일어난 잔혹함 등에 대해 각자가 들은 바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刑事たちは、その時ひどく一般から恐怖されてゐる鮮人の行動や、錯誤から来た残虐などについて各自の見聴きしたことを話し合つてゐた。)(徳田秋声(1973) 『日本近代文学大系21卷』 徳田秋声集: ファイアガン』, 角川書店, p.370)
- 54) 頻繁に警察へ舞ひこんで来る報告も報告も、その元を搜索してみると、何の根拠も事実もないことが確かめらるばかりであつた。(위의 책, 徳田秋声(1973) pp.370-371)
- 55) 「アメリカは日本が朝鮮半島や満州を侵略したと糾弾しますが、日本は朝鮮においても満州において台湾においても、夥しい資本を投入して、さまざまな施設を作り、法を整備しました。ダムを作り、発電所を作り、学校を作りました。おそらく朝鮮も満州も台湾も、この投資を基にこれから大いに発展するでしょう」(앞의 책, 百田尙樹(2012)下 p.15)

일본이 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것은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에는 군수산업만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형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냉전시대의 소련이나 현재의 북한과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남면북양정책(南綿北羊政策)을 통해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서는 면양을 사육하는 정책으로 조선의 기형적인 농업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일본은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온전히 일본을 위해 한 일이었던 것이다.

테츠죠가 태어난 메이지(明治)8년부터 일본은 계속 부국강병으로 힘차게 나아갔다.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해가는 가운데 일본이 살 길은 그것 밖에 없었다. 만약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영미에 식민지화될 것임에 틀림없다.⁵⁶⁾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가가 역사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글을 썼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조선침탈을 위해 발발된 전쟁’이었으며, 영토 전쟁이 아니었다. 만약 작가의 논리대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겼다면 러일전쟁이 아닌 청러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맞을 터인데, 역사사실까지 바꾸려는 작가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또한 두 전쟁은 동북아시아 국가들끼리의 패권싸움이었으며, 열강 국가들 사이의 싸움에서 다른 한쪽의 강대국이 반대쪽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선례가 없었다. 일본군 또한 해외 원정 능력이 있었던 만큼 군사능력이 있어서 뒤쳐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가 될 가정을 세우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진다면 영미의 식민지화가 될 것이 틀림없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작가의 주장대로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본영토에서 발발해야 역사적으로 전후사정이 맞을 것인데, 이 또한 지나치게 비약적인 생각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조선침탈을 위해 발발된 전쟁’이니만큼, 이와 같이 비논리적인 내용의 주장들은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미화하는 것을 넘어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1905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당시,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아님에도 러시아 함대의 감시용 목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조선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갔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기 이전에 일본에게 가장 먼저 병탄된 한반도의 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에도 여전히 독도에 대한 권리 및 과거 식

56) 鐵造が生まれた明治十八年から日本はずっと富国強兵で突き進んできた。欧米の列強がアジア諸国を植民地化していく中で、日本が生き残る道はそれしかなかった。もしも日清戦争や日露戦争で負けていれば、日本は他のアジア諸国同様、ロシアや英米に植民地化されていたに違いない。(앞의 책, 百田尚樹(2012)上 p.335)

민지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식민 지배를 받기 전에 빼앗긴 독도에 대해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셈이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다.⁵⁷⁾ 이렇듯 일본의 뿌리 깊은 왜곡된 역사인식과 민족주의의식이 결국 양국의 정치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일본의 문학과 문화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작가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민족주의의식은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결론

하쿠타는 작품 『영원한 제로』와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를 통하여 현재의 일본(인)이 완전하게 잊고 있는 과거 일본인의 저력을 일깨워 주고자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일본에 버블경제와 리먼 사태가 이어지고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 일본전체에 절망과 체념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다이쇼 11년에 태어난 부모세대인 전전파와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인 전중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많은 일본인이 죽고, 해외자산을 몰수당하고,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뒤에는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를 제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전의 프로젝트였던 신칸센과 동경올림픽 개최를 패전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현시켰다는 것이다.

작품 『영원한 제로』의 시점은 1940년대의 시점이 아닌 현대의 시점으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와 할아버지인 미야베를 일치시켜 그리고 있다.⁵⁸⁾ 그 동안 특공대를 다루었던 것은 동시대인의 시점이거나, 아가와 히로유키(阿川弘之)의 『구름의 묘표(雲の墓標)』에서처럼 해군예비학생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현대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특공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만 읽었던 기존의 작품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는

57)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2006년 4월 25일 故 노무현 前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중)

58) 앞의 책 梶林秀 外(2013) p.115

것이다. 또한 ‘안타깝게도 나는 죽겠지만, 당신은 부디 살아주세요’라는 작품 속의 메시지로 인해, 지금 일본의 번영과 풍족함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과거 일본인의 긍지와 용기임을 인식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일본의 우경문학작품은 역사를 배우고 자신의 주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식보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의 일본제국시기를 그리워하는 것에서 일본의 우경화 및 민족주의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왜곡된 민족주의가 우경문학작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 작품은 ‘너희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숨겨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일본 사회의 불만을 애국심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해소시킴으로서 당장 어려움에 빠진 일본국민들에게 순간적인 단결을 가져올 수는 있다. 하지만 작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왜곡된 역사인식은 독자들에게 왜곡된 민족주의의 인식만을 심어주기에 분명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영원한 제로』는 실존인물이 아니며,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는 실존인물을 중심으로 작가가 자료조사를 하여 쓴 작품이다. 그럼에도 두 개의 작품이 전전과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독자들에게는 왜곡된 역사사실을 그대로 수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해적이라 불린 사나이』의 주인공이 『영원한 제로』의 주인공을 만나는 장면, 즉 작가가 작품 내에 만든 장치로 인하여 『영원한 제로』의 주인공이 실존인물이 되어버리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실존 인물화된 주인공이 작품 내에서 반복적으로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감정적인 호소들은 독자들에게 더욱 더 자연스런 주입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본우경문학이 일본의 민족성을 재평가하고 재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왜곡된 민족주의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세계대전이라는 민감한 역사사건을 언급하면서 전후배경 설명 없이 역사사실을 왜만한 채 일본인의 서사시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본문학의 흐름은 지양해야 될 방향성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기(2006)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pp.306-307
 김호섭 외(2000) 『일본우익연구』, 도서출판 중심, p.21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 安倍晋三·百田尚樹(2013)『日本よ、世界の真ん中で咲き誇れ』, ワック, pp.151-153
- 岡崎優子(2016)「山崎貴[監督]インタビュー: 立派な人を描く伝記映画にほない」『キネマ旬報』, キネマ旬報社, p.20
- 小浜逸郎(2014)「『永遠の0(ゼロ)』が教えるもの」『Voice』435巻, PHP研究所, pp.15-17
- 瀬戸川宗太(2017)「政治に歪められた映画たち: 『海賊とよばれた男』から『スノーデン』まで作品の出来より「右翼」「左翼」のレッテルが優先する奇妙奇天烈」『Voice』473巻, PHP研究所, p.206
- 柄林秀 外(2013)『零戦の軌跡: 『永遠の0』に描かれた激闘の記録』, 双葉社, p.115, p.116
- 三浦小太郎(2014)「『永遠の0』と第二次安倍政権」『伝統と革新』15巻, たちばな出版, pp.110-119
- 徳田秋声(1973)『[日本近代文学大系21巻] 徳田秋声集: ファイアガン』, 角川書店, p.370, pp.370-371
- 秦重雄(2015)「永遠のゼロ: 小説を検証する」『部落問題研究』213巻, 京都: 部落問題研究所, pp.197-210
- 百田尚樹(2009)『永遠の0』, 講談社, p.115, p.152, pp.197-198, p.237, p.238, p.239, p.286, p.300, p.541, p.551, p.557
- 百田尚樹(2012)『海賊とよばれた男 上』, 講談社, p.21, p.22, p.282, p.335
- 百田尚樹(2012)『海賊とよばれた男 下』, 講談社, p.15, p.174, p.186, p.200, p.202, p.240, p.244, p.290, p.309, p.324, p.336, p.348, p.351, p.352, p.354, p.359, pp.359-360
- 百田尚樹(2013)「[Books&Trends] 『海賊とよばれた男 上・下』を書いた作家百田尚樹氏に聞く」『週刊東洋経済』6459巻, 東洋経済新報社, pp.100-101
- 百田尚樹·西村幸祐(2013)「大特集 靖国神社へ行こう!: [特別対談] 完成した『永遠の0』を試写室で見たら、どんどん涙が流れて止まらなかった。」『ジャパニズム』14巻, 青林堂, pp.5-14, p.8
- 渡部昇一·百田尚樹(2014)「『永遠の0(ゼロ)』で敗戦史観を超えよ: GHQの洗脳と思想弾圧を破り日本人の勇気を取り戻す」『Voice』433巻, PHP研究所, pp.86-98
- 『朝日新聞』(2014.1.3)「“『永遠の0』を見て、とても感動したと何度も繰り返した” 中国の国営中央テレビ、安倍首相を批判」
- 『日本経済新聞』(2013.12.20)「「臆病な零戦操縦士」に込めた思い 百田尚樹さんに聞く: 映画「永遠の0」原作者」
- 『産経ニュース』(2016.12.9)「映画「海賊とよばれた男」山崎貴監督「永遠の0」と対になる物語」

논문 투고 일자 : 2018.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계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要旨〉

百田尚樹의 『永遠の0』と『海賊とよばれた男』의 考察

盧潤宣

日本は1990年代から続いてきた政治分野の右傾化を反映するかのよう、2000年代以降、文学や映画、アニメ、ゲームなど多様な文化ジャンルでもこのような傾向の作品が数多く創作されている。

本稿では、このような文化・芸術分野の動きの中で右傾化傾向の文学作品を多数創作してかなりの人気を集めた百田尚樹の文学作品を対象とし、これらの作品の歴史・倫理的観点について考察する。

百田尚樹は2006年に、第二次世界大戦当時の神風特攻隊を素材にした『永遠の0』を刊行して550万部以上も売れた大ベストセラー作家となり、さまざまな作品を創作している。

百田の代表的小説である2点を通し、過去の日本が起した戦争と植民地支配について、合理化しようとする意図がある百田尚樹の文学作品に内在された歴史・倫理的観点が何なのかを把握して、2000年代以降にこのような傾向の文学作品を歴史・倫理的側面から再考する。

Naoki Hyakuta's The Eternal Zero and A Man Called Pirate

Roh, Yoon-Seon

Since the 2000s, a number of Japanese works in different genres, such as literature, films, and animations, have presented right-leaning views that mirror the nation's conservative swing of politics that started in the 1990s.

This paper considers the histor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of two literary works by Naoki Hyakuta, who gained huge popularity by creating several conservative-oriented works as part of this cultural and artistic movement.

In 2006, Hyakuta published The Eternal Zero, the story of Kamikaze pilots in the Second World War; he became a best-selling author when it sold about 5.5 million copies in Japan alone. After that, he created many other works.

This paper reviews Hyakuta's literary works of the 2000s, by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in his works, which tend to rationalize the Japanese wars and colonial rule of the past.